



새누리당 '선거운동'에 나선 TV조선, 채널A

TV조선, 채널A 대담코너의 정치잡담이 도를 넘어선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 채널A <직언직설> 13일 방송에 출연한 이영작 씨는 새누리당의 전략에 대해 “여당으로서는 집토끼를 걸집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진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경제는 망가지게 돼있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라는 메시지를 쥐야한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전략을 분석하는 제 3자의 입장 인양 나왔지만, 이날 이 씨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그 사람들은 제사보다 젓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이틀 뒤 TV조선 <뉴스1>에 대담자로 나와, 자신이 이틀 전에 했던 새누리당이 이기기 위한 선거운동전략을 자신이 그대로 실행했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투표한 우파가 지금 이불 쓰고 뒤집어 누워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좌파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마비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만약에 대통령이 참패라도 하면 ‘귀태’ 얘기하던 좌파들이 얼마나 신나겠냐”며 ‘우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다음 거의 4년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진행하는 앵커들은 발언을 제지하거나 반론을 제시하는커녕, “좌파들이 4년 내내 분노마케팅을 할 것이다”라는 이 씨의 말에 “정권 초기부터 그랬다”, “(좌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 5월 15일자 TV조선 <뉴스 1> 화면 캡처
것이다”는 등 적극 호응했다. 대담 뉴스프로그램이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13일 TV조선 <배성규의 정치속보기/안철수계 '연이은 패배' 정치적 영향은?>(13일, 대담)에서 배성규 기자는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FGI, 그러니까 일부 몇 명 사람들을 심층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정부여당이 잘못했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지지를 철회한 건 아니구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20일 동안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나오고 또 박대통령 쪽에서 수습책이 나오면 목소리를 점점 높이면서 걸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몽준 후보에게 유리한 편집, 불리한 내용은 보도 안 해

방송보도에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들을 녹취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편파적 녹취 인용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MBC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 해놓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는 정몽준 후보 발언 뒤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을 하려면 시민들의 삶과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담았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정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정당당한 사람인데,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주장은 옳고 은근히 남과 자신의 차이를 부각시켜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할 우려가 있는 녹취인용이다.

TV조선, <전북 송하진...대진표 확정>(13일, 김정우 기자) 경우는 녹취인용에 있어서 심각한 편파성이 드러났다. 정 후보의 발언은 박 시장에 대한 공격성 내용(“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신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이었다. 그런데 박 시장은 “정 후보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글썽 좀 잘 모르시는 게 많으시네요.”라고 말하는 부분을 담았다.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그저 상대후보를 비판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다.

한편, 정 후보 부인이 아들의 실언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상파 3사와 채널A, TV조선은 보도하지 않았다.

보수신문 여론조사의 '착시효과' 유권자 혼동만 부추긴다

6.4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문들이 선거 이슈를 대거 지면에 반영하고 있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인다.

다만 꼼꼼한 취재가 필요한 각 후보자의 공약 같은 선거 정보를 다루기 보다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얻은 여론조사 결과를 지면에 대폭 반영하는 것이 거슬린다.

특히 언론이 지면에 다루는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방법과 데이터가 가장 면밀한 공적 검증을 받아야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늘 불편부당성 시비가 뒤따르고 있다. 제목달기도 신중해야 한다.

새누리 지지율 30%대 추락... 대선이후 처음

리얼미터 7~9일 여론조사
朴대통령 51.8%로 떨어졌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2012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진도 팽목항 방문 직후 71%까지 올랐다가 3주 만에 2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7~9일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지난주(43.5%)보다 5.4%포인트 하락한 38.1%였다. 2012년 10월 둘째 주 38.7%였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41.1%로 뛰어오른 뒤 1년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 동아일보 5월 13일자 4면 기사

동아일보는 13일자 종합면에 <새누리 지지율 30%대 추락... 대선이후 처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7~9일 리얼미터 조사결과 지난주 43.5%였던 지지율이 이번주 38.1%로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여론조사가 추세를 보는 것이라면 제목 역시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세> 정도로 달았어야 옳다. 38.1%를 30%대 추락이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큰 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4일자 <송영길(40.4%) 뒤쫓는 유정복(32.6%), 黨 지지율에도 못미쳐>도 당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유정복 후보의 분발을 촉구하는 기사처럼 보인다.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 후보가 유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7.4p%차가 근소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오차범위를 범어서면 근소하다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

조선일보도 13일자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을 다루면서 세월호 사건 전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최근 0.8%p 차로 크게 좁혀졌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 <30대 한달새, 南2.7%p 우세→金37%p 우세>였다. 특정 연령층의 지지율 변화를 제목으로 뽑은 것인데 지극히 선정적이다. 또한 여론조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된 경우에도, 조사결과의 요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아일보는 14일자 종합면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월호

영향 '없다' 54% "있다" 40%>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가 밝혔듯 해당 조사는 경기, 인천, 충북, 충남의 성인남녀 700명을 표본으로 한 것이었기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여론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오류다.

이런 제목을 뽑으려면 부제에라도 특정 지역의 여론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어야 맞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직업별 표심 변동은 다른 부분도 이상하다. 동아일보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55.2%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됐다’고 답해 ‘야권을 지지하게 됐다’ (24.3%)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조사 표본이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 조사결과의 요소를 부적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인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아니었지만 문화일보는 12일자 1면 머리기사에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인용한 기사를 내보냈다. 2014년 인구통계를 2010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입해 본 것인데, 결론은 <5060, 전체 투표자 50%...선거 향배 '키' 쥐고 있다>였다. 다시 말해 유권자중 2030세대는 줄고 5060세대는 늘었다는 것이 요지였다. 해석에 있어 '의도성'이 분명했다.

문화일보는 전문가의 입을 빌리기는 했지만 “고령화, 보수화 유권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와 같은 초대형 이슈를 제외할 경우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세대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라는 데이터로 시뮬레이션까지 한 것은 좋으나 50대 이상 인구를 보수적, 친여적으로 분류하고

6·4선거 유권자수 4년전과 비교해보니...

2030세대 70만명 ↓
50대이상 275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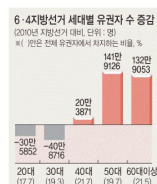
2030 37% <50대이상 41%
세대별 유권자 비율 격차

고령화·보수화 강화될 듯
'세월호 정부 책임론' 변수

○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1회 지방선거는 50대 이상 세대가 20~30대 인구를 앞지르는 첫 지방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보수적이고 친여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50대 이상 인구가 긴 보좌고 친야 성향이 높은 20~30대를 훨씬 전에 비해 비율 면이나 수적으로 압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세대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는 고령화·보수화 유권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와 같은 초대형 이슈를 제외할 경우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화일보가 12일 인천행정부의 2010



만에 4.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인구는 460만 명에서 5120만 명으로 약 120만 명이 증가했다.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30대의 경우 4년 전 40.9%에서 올해 37.0%로 3.9%포인트나 내려갔다. 이에 비해 50대 이상은 4년 전 36.6%에서 올해는 41.2%로 4.6%포인트가 상승했다. 40대 인구는 4년간 20만여 명이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5%에서 21.7%로 0.8%포인트 감

20,30세대를 진보적이고 친야 성향이 높다고 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부제로 “2030 정권심판표 결집이나, 5060 안정화 심리나 주목”이라고 달았다.

문화일보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해 비중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 문화일보 5월 12일자 1면 기사

차대통령 담화는 '예고편'도 필요한가

	KBS	MBC	SBS	YTN	JTBC	TV조선	채널 A
11일	8	13		4		1	13
12일	7	6	6	10		23	12

△ 방송사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예고 보도 (숫자는 보도쪽지 순서)

박근혜 대통령 담화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예고 기사가 별다른 내용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예고 수준을 넘어서 KBS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안전 시스템 개혁' 담화>(11일, 단신), MBC <"많은 의견 수렴 대국민 담화">(13일, 윤지윤 기자)처럼 이미 담화가 발표된 듯한 보도 제목도 있다.

11일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했는데 SBS와 JTBC 이외의 모든 방송사가 보도했고 TV조선은 톱보도로 방송했다. 모든 방송사가 휴일에 회의를 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TV조선 <박 대통령, 긴급회의... "곧 대국민 담화">(11일, 신은서 기자)에서는 "박 대통령이 휴일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휴일의 긴급 회의... '관피아' 대수술>(11일, 박민혁 기자)에서는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서둘러 예고하느라 <'관피아' 대수술>이라는 구체성도 없는 논의내용을 제목으로 부각시켰다.

깨알같이 일하는 박 대통령 이미지 깨알 홍보

13일 국무회의 역시 비중있는 예고편이 따라왔다. 이날 국무회의는 JTBC 이외의 모든 방송사가 보도했다.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2분 정도만 하고 3시간 넘게 메모를 하며 경청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많았다.

TV조선 <난상토론...스타일 바꾸나>(13일, 신은서 기자)에서는

앵커가 "오늘 국무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뭔가 신선한 충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고, 기자는 "박 대통령은 시작과 끝, 중간중간 견해를 짧게 밝힌 것 외에는 주로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고 보도했다.



△ 5월 13일 채널A <종합뉴스> 화면 캡처

채널A <1분 발언 뒤 180분 '깨알 경청'>(13일, 이현수 기자)는 제목처럼 깨알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각시켰다. 앵커는 "박 대통령은 오늘 3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의 허심탄회한 생각을 경청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기자도 "약 세 시간 동안 국무위원 전원이 앉은 순서에 따라 의견을 내놨고, 박 대통령은 묵묵히 들으면서 메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부 책임론이 부각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송사의 노력은 이해가 되지만, 정작 담화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담화를 위한 논의중인 상황을 이렇게까지 매일 예고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몽준의 눈물'에 열광하는 TV조선과 채널A



△ 5월 12일 채널A <쾌도난마> 화면 캡처

TV조선과 채널A는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 당시 흘린 눈물을 주제로 삼아 방송을 진행했다. 12일 저녁부터 13일 오후까지 양사 뉴스와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은 정 후보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반복 재생하면서 '정몽준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분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은 과도하게 정

후보의 눈물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12일 채널A <쾌도난마> 진행자 박종진 씨는 정 후보의 눈물을 언급하며 "진심이 묻어나는 연설이다", "표가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논란이 된 아들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국민이 미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 정서를 함양할 필요는 있지 않나", "연좌제 아닌가"라며 정 후보 아들 발언까지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 채널A의 <직언직설>, <시사명법>에서도 어김없이 '정몽준의 눈물'은 주제로 다뤄졌으며 '몽의 눈물', "50이 넘는 남자가 이렇게 두 손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는 쉽지 않다", "전과 달리 (정 후보가) 대중성이 높아져 이젠 대권을 준비해도 되겠다"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이어갔다. TV조선 13일 <뉴스1> 진행자인 윤슬기 씨는 "눈물 흘린 남자 정몽준 후보의 '영영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눈물을 주먹으로 닦는 게 참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다.

램스타드가 '구세주'인가 언론들 '미국 기자의 글' 옮기기 급급

14, 15일 한국 언론들은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이 전략국제연구소(CSIC)의 한 기고문을 옮기기에 바빴다.

문화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상당수 매체들이 미국 미네폴리스의 스타트리분의 디지털경제 에디터인 에반 램스타드의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미국적 시각에서 바라본 ‘세월호 후폭풍’에 대한 한국 사회와 경제 관측이지만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도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참사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치적 리더십은 부족해서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램스타드는 기고문에서 한국경제가 세월호 사건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 9.11 테러 때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즉 부끄러움과 분노 등의 감정이 실물 경제 등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콘서트, 축제 등 여러 행사들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11 당시 데이비드 레터 맨, 조지 부시 대통령, 줄리아나 뉴욕 시장처럼 “It’s OK to move on”을 말하는 이가 한국에는 없다고 밝혔다.

램스타드는 “하지만 언론은 노력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램스타드는 중앙일보 사실 중 “당장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세월호 쇼크에 한국 경제 흔들리는데 왜 日常으로 돌아가자는 리더는 없나

前 WSJ 서울특파원 쓴소리



‘세월호의 극은 한국 경제 붕괴로도 이어 수 있다’는 제 의 이 기고문에 그는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충격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참사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치

△ 조선일보 5월 14일자 4면 기사

없겠지만 일상적인 소비와 통상적인 활동은 차분하게 재개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침몰이 비통하다고 해서 서민경제를 가라앉히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좌초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중앙일보의 논조는 램스타드의 기고 글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램스타드는 “일상으로”를 영어로 이야기했다는 정도며, 대통령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램스타드는 현재 한국에 있지 않고 ‘소수의 한국의 매체’를 통해 제한적으로 한국 상황과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지적이 일정 정도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계가 있다. 결국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에 영향을 입은 램스타드의 글이 다시 한국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미국적 시각’ 또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이건희 공화국인가

	KBS	MBC	SBS	YTN	JTBC	TV조선	채널 A
보도 수	2	3	3	2	1	6	1
배치	(9~10)	(1~3)	(4~6)	(9~10)	(15)	(2~7)	(17)

△이건희 입원 관련 방송사 메인뉴스 보도(5월 11일)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시술을 받았다.

모든 방송사가 당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JTBC와 채널A가 비교적 차분하게 1쪽지씩 다른 반면, KBS와 SBS가 각 2, 3쪽 지씩 다뤘다. 특히 MBC는 톱보도로 3쪽지나 보도했고 TV조선은 6쪽지로 물량공세 수준의 보도를 했다. 기사 비중도 2번째 쪽지부터 시작해 7번째 쪽지까지 내보내 그날 최고의 뉴스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보도 내용도 문제가 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남다르다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온 국민이 미주 알고주알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병력까지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했으며, 심지어 이 회장 곁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됐다.

KBS는 <급성심근경색이란...‘그룹경영·후계구도’ 파장은?>(11일)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고, 복부비만에 고령인 점”을 언급했고, MBC는 <급성 심근경색 응급 시술>(11일, 김경호 기자)에서 “지난해 8월 폐렴 증상으로 열흘 가량 입원 치료, 2009년에는 기

관지염, 2008년에는 독감으로 입원, 1990년대 말 림프암 수술을 받은 뒤 줄곧 폐를 비롯한 호흡기가 좋지 않았다”다 것을 보도했다. 마치 병원의 진료 기록을 해킹이라도 한 수준이다. TV조선은 한 술 더 떠 <이건희 회장이 받은 시술은?(호원병원 이용재 원장)>(11일)에서 ‘심근경색’에 대한 전문의와의 상세한 대담까지 보도했다.

한편, 방송들은 ‘그룹경영과 후계구도’에 대한 별도의 쪽지로 다루 지나치게 비중있게 보도했다. 마치 자신들이 삼성그룹의 임직원이나 되는 것처럼 <삼성 초간장, 3세 승계 더 빨라질 듯(SBS)>, <후계 승계 작업 속도 낼 듯(MBC)>, <급성심근경색이란...‘그룹경영 후계구도’ 파장은?(KBS)> 등 호들갑스러운 관심을 보였다. 또 TV조선은 <삼성 ‘초비상’...급거 귀국>, <SNS ‘술렁’...‘빨리 회복되기를’>, <건강관리’에 극도로 신경> 등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건희 회장을 벌써부터 ‘위인화’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